**부활 신앙, 그 희망과 사명**

**<요한복음 20장 19-23절>**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 신앙을 얘기할 때는, 이 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단순히 인정한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래야 한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예수 부활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과 도전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는 희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인 안에 만들어내는 희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해를 가할까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그 날 저녁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걸고 그들 이외에 아무도 만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에 창 자국은 실상 제자들 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요인들이 아닙니까?

자기들 몸에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생기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몸을 사리고 숨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 몸에 상처 자국이 오히려 그들 속에 새로운 기쁨을 창조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기들 앞에 있는 그분이 정말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바로 그 수난의 흔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한 때 두려움의 요인이었던 것을 이제 더 큰 기쁨의 요인으로 바꾸어놓습니다.

또한 한 때 실패와 불행의 상징이었던 것을 이제 승리와 희망의 싸인으로 바꾸어놓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해석을 바꾸며, 또한 그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느낌과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우리 앞에 놓인 현실들을 이제 새로운 희망의 빛 속에서 담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그의 책 <희망의 신학>에서 ‘낙관주의’와 ‘기독교적 희망’을 구분합니다.

낙관주의는 과거나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낙관주의에 연결되어 있는 미래를 그는 ‘푸투룸(futurum)’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살펴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을 추정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될 때 낙관적이 됩니다.

반면, 기독교적 희망은 ‘외부’,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관됩니다.

이것을 몰트만은 ‘아드벤투스(adventus)’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기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늙은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으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타국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방을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였고, 바울 일행이 찬송하고 기도하자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들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아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선물로 받으리라는 기대, 그것이 부활 신앙에 연결된 기독교적 희망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희망 안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낙관주의가 아닌 이 기독교적 희망의 근거 위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나 경험 속에 이미 존재하던 좋은 것이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질 좋은 것을 기대하며 신실하신 그분을 줄기차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친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은 기대하고 노력해왔던 일이 벽에 부딪히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불안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부활 신앙을 다시 견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보여주시는 그 수난의 흔적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은 실패와 불행의 상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이 새롭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은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을 창조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평강을 여러분 마음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

부활 신앙에 내포된 그 희망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언제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하는 사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부활을 비로소 믿게 된 제자들, 그래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게 된 그들을 이제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땅을 사시는 동안 그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평강, 그분의 사역을 옆에서 도우셨던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혹은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일에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주며, 따라서 우리 역시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의 길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처럼 주님께 보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맡겨주시는 일을 간단히 말하자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세상에서 행할 일에 대한 강조점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게 하는 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쳐 제자 삼는 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 그리고 죄를 사하는 일,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해오셨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아직 다 완료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에 의해 결정적으로 시작된 그 일들은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 이어지고 또한 전파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로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처럼 예수 십자가로 먼저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 피 흘림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만연하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며 살아가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적 경험들은 우리 속에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어쩌면 회개는 가해자에게 요청되는 일이겠지만, 이 피 흘림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구조 속에서는 피해자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가 다음 순간 또 한 명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 폭력과 피 흘림의 악순환을 누가 어떤 식으로 끝장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 죽음의 냄새 나는 오래된 흐름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두 팔을 벌리심으로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우리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어가도록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실천하는 용서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용서의 사역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 받은 사람들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천 년 전 그 열두 제자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21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보내시는 사역은 당시의 열두 제자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도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세상에 각자 보냄받은 자리에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을 증거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곳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하셨던 죄 용서의 사역, 평화를 이루는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중요한 한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선교를 그저 기독교 세력을 확장하는 일, 혹은 교회의 규모를 키워가는 일로 이해하고, 선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선교는 이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 회복되어가는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노숙인 식사봉사 사역에 우리 한인공동체 분들도 함께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빵과 스푸와 과일을 받으며 한 노숙인 청년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 가게 되면 거기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나도 이런 일을 하겠다!”

나눔은 또다른 나눔을 낳고, 평화는 또다른 평화를 낳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걸고 있던 제자들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나와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그처럼 타인을 두려워하고 낯선 것을 꺼리는 마음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을 인식하고 극복하며 바른 복음의 증인들로 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경험에 근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주어질 가장 좋은 것에 대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일 때 생겨나는 마음 속의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희망과 평강을 약속해주시며 우리를 성령과 더불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를 바로 이 희망과 사명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부활 신앙을 다시금 견고히 붙들고, 그 희망 안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주님께 보냄 받은 자리에서 주님의 용서와 평화의 사역을 성실하게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과 평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용서와 평화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 중에 기도하고 인내하며**

**보냄 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묵묵히 용서와 평화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